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분류	구역공과-2018년 7과
제목	집중시대③- 집중의 시간표
성경	사도행전 19:21
일시/장소	2018년 2월 18일, 부산 임마누엘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사도행전 19:21)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지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주간 말씀흐름

1.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

-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모세(창3:15, 창6:14, 창12:1-3, 출3:18)→ 출애굽의 기적
 - 이사야(사7:14)→ 출바벨론의 기적
 - 초대교회(마16:16)→ 출로마의 기적
-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행1:1, 의사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
 - 행1:3, 하나님 나라 임재
 - 행1:8, 권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
 - 행1:14,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자들이 모였다.
 - 행2:1, 응답중의 응답인 성령충만.
 - 행3:1-1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 행4:12
 - 행16:25-27, 영세전부터 영원히 있을 것을 지금 누리게 된다.
-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
 - 렘넌트 7명→ 요셉(4대), 모세(400년), 사무엘과 다윗(14명의 사사),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초대교회(700년)
 - 루터(1500년)
 - 종교개혁 이후 500년→ 지금 누가 복음을 회복할 것인가?

2.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

-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행1:1,3,8)
- 안디옥 교회(행11:19-30)
- 마케도냐(행16:6-10)
- 로마(행19:21, 행23:11, 행27:24)

3. 세상 변화 시킬 시간표

- 예수님의 공생애→ 3년 후에 일어나 것을 훈련시키셨다.
- 안디옥 교회→ AD70년(예루살렘 함락), AD79년(폼페이화산폭발), AD313(기독교 공인) 시대를 준비하는 응답을 주셨다.
- 나의 시간표→ (질문) 3년, 10년,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는 실제로 미래를 준비한다.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치유(집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치유에 관한 걸 여러분이 조금 알고 또 전달하고 해야 된다. 그 단어가 바로 집중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집중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설명 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아픈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아픈 사람들 중에서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다. 또 이제 애들 가운데는 게임 이런 것에 중독 된 아이들이 많다. 또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 된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 이 걸 여러분이 치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집중 반대말이 뭐죠? 집중 반대말이 분산이다. 그런데 자꾸 집중 될 수 없도록 자꾸 분산 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언약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알려주는 것이다.
반드시 이뤄지는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

1.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지는 시간표가 있다. 이 공과 내용 설명 포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 될 때 이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 있는 중직자들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걸로 각인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고치는 길은 이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막 아이들이 말이지, 기회 아닌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 예는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리스도로 각인 될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각인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집중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사실상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하게 되는데 사람들 말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나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을 어떻게 안 듣냐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나를 치유 되지 않도록 자꾸 되는 얘기들을 한다.
▶여러분들은 예사로 한 말인데 아이들은 영적 문제 온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입어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부분만 있으면 정말 치유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을 보고 얘기해주시라. 새가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네 찬송할 때 가사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장로님 이 나와 기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 자세히 듣고 같이 아멘하면서 한 번 들어봐라.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게 될 것이니까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한 번 봐라. 이것만 가지고도 치유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간 몸에 종기가 났다고 하자.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고쳐지는데 자꾸 건드려서 병만든다. 어떤 면에서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자인 치유를 다 행한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이나 그렇다. 우리는 예사로 그냥 듣는 것들이 다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진짜 치유 되고 응답 받는 건 쉽다는 말이 되어진다. 쓸데없는 것에서 어려운 걸 막 찾아 낼 필요는 없다.

2.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를 보라.
1)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라방- 행1:1, 3, 8
▶그래서 언제든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라방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는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게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사업에도 문제가 오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왔단 말이다. 그 답이 감람산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을 얻은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행1:1,3,8이다. 이게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후암 권세 다 끝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발견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내려 왔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것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그마한 한 개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재밌다고 볼 수 있다. 왜냐, 거기에 응답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영적 문제 만나서 한 사람들 보면 이걸 유지를 못하고 계속 다른 걸 듣는 것이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한 10년 넘었다. 10년 전에 위

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자기 말 도저히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조금 얘기를 해달라. 내가 여자를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그냥 약간 미안하듯이 웃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냐? 물었더니 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 왜 안 해줍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집회 따라다닌다고, 굳이 동네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이까지 오자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남자가 한 개도 틀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쳐다보니 집사님이 날 보고 웃더라. 내가 밥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알았다고 하더라. 별로 문제도 아닌데 기도해주고 보냈다. 나 같 때 그 남자만 불렀다. 불려서 당신이 좀 도와주라. 밥도 중요하지만 좀 도와주라. 정말 메시지 계속 듣도록 좀 도와주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알아들으면 될텐데 이 미 자기는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더라.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부산에 나타나고 서울에 나타나서 교회에서 막 고함지르고 그랬다. 지금도 고함지르다가 병원에 갔는지 요즘 안 보이더라. 서울에 김경숙이다. 계속 고함지른다.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도와주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 번은 딸이 찾아왔다. 이 딸이 말어요, 뭐라고 하나면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다.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 네 전도사인데 왜 거짓말 하느냐? 네 엄마 원래 그랬다. 그러면 서 내가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다. 네가 가족들 진짜 안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꼭 있다. 이걸 좀 제대로 예배드리게 해주면 되는데 옆에서 그걸 안 해준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너무 아픈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다. 물론 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여 서밋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될 때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집중해서 사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의 현장 가시면 그 분들이 얼마만큼 어렵게 산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가기를 산다고 걱정 했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다른 시간표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는 응답이 계속 왔다.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게 된다. 그건 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를 말한다.

아준 것이다. 사실 내 말이 아무 필요없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거기에 다 적은 것이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예에게 치유 되는 역사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깐 예배하는 동안에도 치유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들어 있는 병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치유 될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의사도 못 고친다. 이걸 영적인 병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치유가 된다. 그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몇세 동안 지내다가 오시게 된다. 정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치유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 될만큼 하나님이 역사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3. 세상 변화의 시간표-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힘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 변화의 시간표가 있다. 이걸 초대교회는 안 것이다. 이미 예수님 공생애 때 일어난 사건들 많이 봤다.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올 것이다. 이걸 안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로마에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것을 살리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당연히 능력 주실 걸 약속하셨다. 여러분에게 온 능력 중에 능력이 뭘니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능력 중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조금도 집중 안 한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가까이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괜찮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원래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나 만나면 늘 교회 고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뒤에 내가 바빠서 못 만났는데 시간 되어서 만나면 늘 교회 고민 얘기한다. 장로님, 그런 말 듣지 마시라. 그냥 장로님은 기도하시라. 듣지 말고 그런 것 보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막 너무 시험 많고 이런 교회다. 그러더니 이 분이 어느 날 아주 중한 병이 걸렸다. 너무 고생을 해서 그렇다. 막 교회 가도 고생이지, 집에 가도 고생이지, 자기 일하는 곳에 가서도 고생이다. 건디지를 못한다. 사람 착하다. 은혜 못 받으면 차라리 못 댈게 낫다. 은혜 못 받으면서 사람은 착하다. 예사로운 얘기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 할 수 있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약간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결론

- 1)실제
 - ▶실제로 조금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많은 것도 아니다.
- 2)작은 것
 - ▶아주 작은 것이다.
- 3)현장
 - ▶그리고 현장이다. 여기서 약간만 도와줘도 여러분 통해서 전도 문도 많이 열릴 것이다.
 -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 교사도 있을 것이다. 혹은 교수도 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이들 상대로 가르치는 학원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음악 이런 선생님이 우리 다락방에 많다. 약간만 그 아이들하고 상담해주시라. 상담을 할 때 자꾸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시켜주면 그 아이에게 치유 되는 역사 일어난다.
 - ▶그래서 옛날에 정신 질환 앓던 뎀버 하나 우리 교회 있다가 원래 교회로 갔잖아요? 네가 염려 안 되는 이유만 내가 말씀으로 찾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data.rutc.com ② 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